

1/13/19

설교 제목: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시편 37 편

- (시 37: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절관주** 잠 24:19
- (시 37: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시 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시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시 37: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절관주** 미 7:9
- (시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 (시 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 (시 37: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절관주** 욥 7:10
-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 (시 37: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 (시 37: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 (시 37: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절관주** 시 11:2
- (시 37: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 46:9
- (시 37: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 (시 37: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 (시 37: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 (시 37: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 (시 37:20)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와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 (시 37:21)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 (시 37: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 (시 37: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 (시 37: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관주** 미 7:8, 고후 4:9
- (시 37: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시 37: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시 37: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 (시 37:28)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 (시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절관주** 시 37:18
- (시 37:30)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 (시 37: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 (시 37: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 (시 37:33)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시 37: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 (시 37: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절관주** 욥 8:16
- (시 37: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 (시 37: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 (시 37: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 (시 37: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 (시 37: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Happy New Year!

2019 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새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모든 영역에서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쇠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쇠하는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의아해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장 악을 행하는 저들을 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동서고금 인생을 살았던 모두가 품었던 의문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렘 2:1)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합 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본 시는 다윗 왕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도 어느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인생이 쉽겠느냐마는 다윗 왕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무릿매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어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했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수 십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자 이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하고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 왕은 궁전에서 쫓겨나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윗 왕은 이같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느 인생들과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이 되어 드디어 자신이 모순되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있게 인생들에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의롭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의 승승장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을 너무 가까이서만 들여다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 1.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 37: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 37: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적인 행동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입니다.

풀과 푸른 채소가 영원합니까?

아무리 악인이 잘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국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 2.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시 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시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 3. 인내하라고 합니다.

(시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 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 37: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안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당장은 형통한 것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곧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에 동요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시며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시 37: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시 37: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잠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영원히 형통할 의인들을  
핍박하고 날뛰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비웃고 계십니다.

(시 37: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 37: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물론 의인의 세상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시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잣대로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르켜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까?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하여 자신의 세 딸들과 동침하여 아이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아를 가르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성경은 이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구속을 받아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원어로 '카도쉬' 또는 '하시드'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고 본 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악인은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보면 믿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은 아리고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요동치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억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에게는 백보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각자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19 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 년도 2018 년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세상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기에 2019 년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2019 년을 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후에 받게 될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악인의 일시적인 행동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